

해양수산부,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 지속 지원

-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대상자 2차 공모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8월 5일(월)부터 8월 16일(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펀드) 2차 지원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화 펀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 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며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분할하여 상환하면 된다. 2024년도까지 총 2,190억원의 현대화펀드가 조성되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7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안여객선 외에도 연안화물선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지난 현대화펀드 지원대상자 공모("24.4.29~5.17)를 통해 현대해운(주) 등 4개 업체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선박 건조에 소극적인 선사들이 이번 추가 지원으로 노후선 대체건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우리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도경식 (044-200-5730)
	연안해운과	담당자	사무관	한정수 (044-200-5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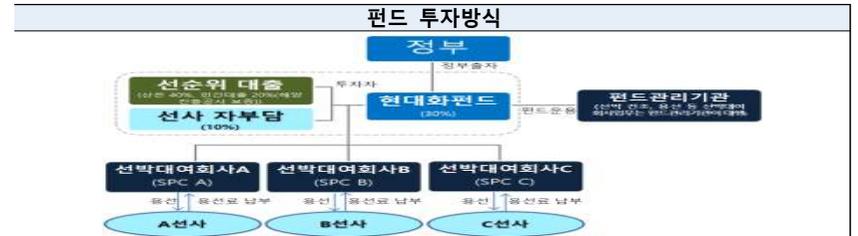
참고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정부 출자를 통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부담을 결합하여 선박대여회사 설립 및 선박 건조
- (사업기간/펀드규모) '16~'27 / 2,990억원
 - * '16~22년까지 1,990억원 출자하여 연안여객선 건조지원/ '24년부터 내항화물선 지원을 위해 1천억원 추가 출자
- (지원대상/펀드운영)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 (주)세계로선박금융
- (지원조건) 국내 조선소 건조 시 건조가의 최대 60% 무이자 지원
 - * 선박대여회사가 선주가 돼 선사와 장기 용선계약(15년)을 체결하고 여객선사는 용선료를 지불해 펀드 투자금 상환(3년거치 12년 분할상환)

구분	현대화펀드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자부담
선가 120억원 초과	30%	산업은행 40% + 민간금융 20%(해진공 보증)	10%
선가 6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40%(해진공 보증)	10%
선가 60억원 이하	6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30%(해진공 보증)	10%



□ 지원현황

지원선박	선사명(선명)	항로	선종	총톤수
1	한일고속(실버클라우드)	완도-제주	카페리	19,700톤
2	한일고속(한일골드스텔라)	여수-제주	카페리	19,700톤
3	에이치해운(울릉썬플라워크루즈)	후포-울릉	카페리	13,000톤
4	씨월드고속훼리(퀵제누비아)	목포-제주	카페리	26,700톤
5	현성MCT(오션비스타제주)	삼천포-제주	카페리	20,500톤
6	고려고속훼리(코리아프라이드)	인천-백령	패속선	1,300톤
7	신안군(건조 추진중)	송공-병풍	차도선	300톤